

2025 대구오페라하우스 어린이·가족오페라

HÄNSEL und GRETEL

헨젤과 그레텔

Engelbert Humperdinck

엔겔베르트 훔퍼딩크

2025. 5. 23-24 / 5. 30-31



HÄNSEL UND GRETEL

주최



대구문화예술킨용원



주관



협찬







2025 대구오페라하우스 어린이·가족오페라
HÄNSEL und GRETEL
헨젤과 그레텔

Contents

01 개요 Summary

02 인사말 Greetings

03 작곡가 소개 Composer

04 줄거리 Synopsis

05 등장인물 Characters

06 작품소개 Exposition of Hänsel und Gretel

07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08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09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10 출연진 Cast

11 출연단체 Cast

12 제작진 Staff

13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2025 대구오페라하우스 어린이·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025. 5. 23-24 / 5.30-31

공연개요	작곡	앵겔베르트 훔퍼딩크 Engelbert Humperdinck, 1854-1921
	대본	아델하이트 베테 Adelheid Wette, 1858-1916
	원작	그림형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
	초연	1893. 12. 23. 독일 바이마르 궁정극장
	형식	3막
	언어	독일어, 한국어(국문/영문자막 제공)

주요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한주헌
	연출	헨드릭 뮐러 Hendrik Müller
	재연출	이혜영

출연진	헨젤 M.Sop.	정세라, 이재영
	그레텔 Sop.	허은정, 윤성희
	엄마 M.Sop.	이아름, 박소진
	아빠 Bar.	김형준, 서정혁
	마녀 Ten.	이요섭, 김성환
	모래요정/이슬요정 Sop.	박희경, 박예솔

출연단체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극단 놀해랑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에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보이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림형제의 익숙한 동화에 흠뻑덕의 풍부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더한 이 작품은
환상적인 스토리와 감각적인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고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혼신의 열정으로 준비한 이번 공연이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찾는 모든 관객 여러분께 달콤한 예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극장을 찾는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시민 참여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객 여러분들께는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통해
오페라가 우리 일상 속 기쁨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출연진 및 제작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 5.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엔겔베르트 훔퍼딩크

Engelbert Humperdinck

1854-1921

독일 라인 지방의 지그부르크(Siegburg)에서 태어난 낭만주의 작곡가 훔퍼딩크는 이미 일곱 살 때 첫 작품을 썼으며, 열세 살 때 징슈필을 작곡한 천재였다. 부모는 아들이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으나 그는 쾰른음악원에 들어가 작곡을 전공했고, 1877년에는 모차르트 장학생으로 뮌헨 왕립음악학교에 입학했다. 1879년 멘델스존 장학금을 받아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그는 나폴리에서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올랐던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났고, 그의 초청으로 바이로이트에 건너가 <파르지팔>의 작곡 조수로 일했다. 19세기 후반, 삼십대 중반에 접어들어 이미 독일에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던 훔퍼딩크는 여동생 아델하이트 베테의 부탁을 받아 어린이 연극으로 각색한 그림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삽입할 소곡을 작곡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매혹적인 음악에 빠진 주변인들은 조금 더 긴 오페라 작곡을 부탁했으나, 바그너의 영향으로 오페라 작곡을 신성한 것이라 여겼기에 훔퍼딩크는 거절했다. 그러나 결국 주위의 설득에 못 이겨 3년 만에 오페라가 완성되었고, 어린이와 마법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발랄하고 신나는 음악과 동화적인 이야기로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의 초연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이듬해 <헨젤과 그레텔>만을 공연하는 순회 극단이 생겨날 정도였다. 또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림형제의 원작동화까지 유명세를 타는 등 훔퍼딩크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게 된다.



Adelheid Wette

훔퍼딩크의 누이동생 아델하이트 베테

1막

독일 어느 지방의 깊은 숲 속. 가난한 집안의 남매 헨젤과 그레텔은 함께 집을 보고 있다. 헨젤이 배가 고프다며 불평하자, 그레텔은 저녁식사로 먹게 될 우유를 보여준다.

엄마가 두 아이에게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잔뜩 적어주었지만, 남매는 집안일은 뒷전인 채 모처럼 재미난 시간을 보낸다. 일찍 집에 돌아온 엄마는 집안일은 하지 않은 채 집을 어질러놓은 아이들을 혼내다 실수로 우유가 들어있는 단지를 깨트리고, 저녁을 대신할 산딸기를 구해오라며 아이들을 깊은 산 속으로 쫓아 보낸다.

곧이어 기분 좋게 숲에 취한 아빠가 돌아온다. 엄마가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술이냐며 못마땅해하자, 아빠는 빗자루를 전부 팔아 돈이 생겼다며 사 온 먹을거리를 보여준다.

남매를 숲속으로 보냈다는 소리를 들은 아빠는 아이들을 생강과자로 만들어버리는 마녀의 이야기를 하며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찾아 나선다.

2막

그레텔은 들꽃을 따서 목걸이를 엮고, 헨젤은 산딸기를 따고 있다. 남매는 숲 속에서 빠꾸기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남매는 길을 잃는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길을 찾을 수 없는 남매는 졸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저녁 기도를 드린 뒤 잠이 든다. 그때 어디선가 모래요정이 나타나 남매의 눈에 금가루를 뿌린다. 천사들이 나타나 남매를 지켜준다.

3막

다음날 아침, 이슬요정이 나타나 헨젤과 그레텔을 잠에서 깨운다.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눈앞에 과자로 만든 집이 보인다. 배가 고픈 헨젤이 과자 한 조각을 떼어먹자 집 안에서 나온 마녀가 아주 친절하게 헨젤과 그레텔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한다.

남매가 무서워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마녀는 주문을 걸어 헨젤을 큰 새장에 가두어버린다. 마녀는 물 끓이는 일을 시키기 위해 그레텔을 화로 쪽으로 부른다. 그레텔은 자기를 화로에 집어 넣을까봐 슬쩍 단청을 피우면서 화로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가르쳐달라고 한다. 마녀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화로의 문을 여닫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레텔은 이때다 생각해 마녀를 화로로 밀어 넣고 문을 잠가버린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귀할멈의 집에서 생강과자가 될 뻔한 아이들을 모두 구해내고, 뒤늦게 달려온 부모님과 기쁘게 재회한다.

한젤 HÄNSEL

한젤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오빠예요.
부모님의 꾸중에도 그레텔을 먼저 챙기고,
낮선 숲에서도 동생이 무서울까봐 애써 웃음을 지어요.
마녀에게 잡혀 새장에 갇힌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동생을 믿죠.
겉이 나도 용기를 내는 진짜 어른 같은 아이예요.
그레텔에게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존재랍니다.

그레텔 GRETEL

그레텔은 작지만 아주 똑똑하고 따뜻한 소녀예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빠 손을 꼭 붙잡고,
마녀 앞에서는 눈을 반짝이며 기지를 발휘해요.
끓는 물을 데우라는 마녀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과감하게 마녀를 화로에 밀어 넣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두를 구한 그레텔은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마녀 WITCH

마녀는 겉으로 보기엔 달콤한 과자집 주인이지만,
그 속엔 무서운 욕심이 숨어 있어요.
배고픈 아이들을 유혹해 집으로 끌어들인 뒤, 무시무시한
주문으로 한젤을 가두고 그레텔을 부려먹죠.
하지만 욕심 많은 마녀는 결국 착한 마음과 용기 앞에서 무
너지게 돼요.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속마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죠.

아빠 FATHER

아빠는 말수가 적지만 마음이 깊은 나무꾼이에요.
가난한 형편에 마음은 늘 무겁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한젤과 그레텔이 돌아왔을 때, 그 넓은 품은 말없이
아이들을 안았고, 그 순간 말없이 흘린 눈물이 아빠의 마음
을 그대로 보여줬죠. 자식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기
쁨 하나로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요.

엄마 MOTHER

엄마는 엄격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잃고, 아
이들을 야단치며 상처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젤과 그레텔이 돌아온 순간, 그 누구보다 먼저 아
이들을 껴안았죠. 마음을 말로 전하지 못했을 뿐, 아이들을
깊이 사랑했던 엄마였어요.
때로는 서툴러도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모래요정/이슬요정 FAIRY

요정은 어둡고 무서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조용히 감싸주는 존재예요.
한젤과 그레텔이 잠든 순간, 눈 위에 금가루처럼
반짝이는 모래를 뿌려요.
천사들과 함께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며,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신비로운 요정이예요.
말없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아이들 곁에 있어요.

아기자기한 매력이 가득한 동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 우리에게 ‘과자로 만든 집’으로 잘 알려진 동화의 주인공이다. 가난한 집의 오누이 헨젤과 그레텔은 깊은 숲속에서 마녀에게 잡아먹힐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살아서 돌아온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과자로 만든 집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과자로 만든 집’이라고 알려졌으나 원래는 그림형제가 수집한 독일 지방의 전래민담이다.

1812년 출간한 ‘그림동화집’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이 작품은 소년, 소녀가 주인공이고 마녀와 과자로 만든 집 등이 등장하는데다 해피엔딩이라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림동화집’에 실린 다른 많은 동화와 마찬가지로 중세 독일의 냉정하고도 가슴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헨젤과 그레텔은 빈궁하기 그지없는 나무꾼의 자녀들이라 항상 배고픔에 시달린다. 동화에서는 숲속에서 헤매던 두 남매가 기지를 발휘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들을 두 번이나 숲속에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친부모다. 고달픈 현실에 지친 친어머니가 아이들을 깊은 숲속에 유기하는 비극은 기근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던 당시 독일 농민의 실상을 보여준다. 후대에는 친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 하여 어머니는 계모가 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계모는 죽고 없는 설정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원작에서 아이들을 버리는 것은 친모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배경은 독일의 숲이다. 밝은 대낮에도 앞이 어두울 정도로 나무가 빽빽한 독일의 숲은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예술에 영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울창한 숲속에서 일어날 법한 신비로운 수많은 일들은 여러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처럼 독일의 숲과 자연환경은 환상과 기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 낭만주의 문학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작곡가 엥겔베르트 훔퍼딩크(1852-1921)는 독일 민족의 정서가 가득 담긴 이 민담을 동화적인 오페라로 작곡해 1893년 초연했다. 훔퍼딩크는 쾰른음악원에서 본격적인 음악공부를 시작했고 뮌헨에서 활동하다 나폴리에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난다. 이후 훔퍼딩크는 바그너의 충실한 제자로서 바그너의 아들 지그프리트의 음악교사로도 일하고 그의 유작이 된 ‘파르지팔’의 창작을 돕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헨젤과 그레텔’에는 바그너의 색채가 강하게 느껴진다. 작품에서 나타난 반음계적 화성의 사용이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음악적 구성은 바그너의 고유한 작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반면 웅장하고 장대한 신화적 소재에 천착한 스승과는 달리 훔퍼딩크는 스스로 동화 오페라(Märchenoper)로 이름 붙일 정도로 소박한 이야기에 독일 민속음악을 결합하여 악극을 만들었다.

처음 훔퍼딩크는 유치원 보육교사였던 여동생의 의뢰로 크리스마스를 위한 연극 '헨젤과 그레텔'에 사용할 4개의 노래에 음악을 작곡을 해줬다. 이후 그는 이 4개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오페라로 작곡했다. 독일어 대본은 여동생 아델하이트 베테가 맡았다.

1893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이뤄진 초연은 대성공이었다. 오페라에서는 앞서 지적한 중세 독일 농민의 참담한 현실이 많이 순화됐다. 아이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는 집을 나가 숲속을 헤매다가 과자 집을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부모는 큰 걱정 속에 늙은 마녀가 나온다는 숲속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남매와 상봉한다. 그리고 동화적인 요소가 강조됐다. 산딸기를 따러 숲으로 간 아이들은 어두워진 숲속에서 잠의 요정을 만나 두려움을 잊고 잠이 들다 아침에 이슬을 뿌리는 이슬요정이 다정스레 오누이의 잠을 깨워준다.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늙은 마녀도 무섭기보다는 우스꽝스럽다.

특히 훔퍼딩크는 마녀 역할을 여성이 아닌 남성이 맡아 기괴함을 더하고 있다. 오늘날 과자 마녀 역할은 여성 성악가 대신 남성 테너 성악가가 노래하여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밖에도 헨젤과 그레텔이 집에서 춤을 추는 장면, 요정들이 아이들을 재우고 깨우는 장면, 과자로 만든 집이 모습을 드러낼 때 흥분하는 아이들의 장면 등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선율과 흥겨운 음악들은 분위기를 돋운다. 그리고 이 오페라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도 등장한다. 2막에 집을 나온 그레텔이 숲속에서 부르는 아리아 <숲속에 소년이 하나 있었네>는 우리 동요 <어디까지 가느냐 개굴아>로 변안되어 많이 불리고 있고 2막의 <저녁 기도> 역시 익숙한 멜로디다. 그리고 작품은 <나쁜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야>라는 유쾌한 합창으로 끝으로 맺는다. 마녀는 자신이 대신 과자로 구워지는 벌을 받고 남매는 부모와 기쁘게 재회한다.

아기자기한 매력이 가득한 '헨젤과 그레텔'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페라 평론가 손숙연

1막



2막



3막





<헨젤>



<그레텔>



<아빠>



<엄마>



<마녀>



<모래요정/이슬요정>



<연기자>



<합창단>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정갑군
Chung Kabgun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연출 수업
- 최초 국악오페라 <직지> 연출, 독일 칼스루에극장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발레페스티벌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델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연출가 최초로 2년 연속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 오페라 <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등 145편 연출
-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지휘 Conductor



한주헌
Han Juheon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졸업
-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 오페라극장 상임지휘자 및 뮤지컬 음악감독 역임(2019-2024)
- 독일 프라이베르크 시립 오페라극장, 교향악단 수석상임지휘자(1.Kapellmeister)역임(2013-2019)
- 비엔나 방송교향악단, 소프라노 조수미와 드라마 OST 녹음 작곡 및 지휘
- 사카모토 류이치 추모공연 지휘 및 피아노 연주, 예술 감독
- 독일 드레스덴 Sachsen주 오페라 페스티벌 초청 객원지휘
-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홀로코스트 80주년 추모 음악극 작곡, 초연
- 독일 하이델베르크 VHS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음악감독 및 지휘자 역임
- 2013 제6회 국제투어필름 페스티벌(포르투갈) '음악상' 수상
- 2021 독일 뮤지컬 어워드 '최고작품상' 수상
- 현) 독일 Tecklenburg 음악감독(2025.6-)
- 이탈리아 Pasqua Musicale Arcense 페스티벌 상임지휘자(2018-)

연출 Director



헨드릭 뮐러
Hendrik Müller

- 빈, 메클렌부르크, 노이쾰른,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코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포츠담, 마인, 로츠 등에서 오페라 <루살카>, <병사 이야기>, <마님이 된 하녀>, <삼손과 데릴라>, <코페르니쿠스> 등 연출
- 오페라전문지 <오펜벨트> '올해의 재발견(2007)', '올해의 젊은 아티스트(2013)'로 선정
- 클라우스 미카엘 그뤼버, 피터 무스바흐, 아힘 프라이어 등 유명 연출가의 조수로 활동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마술피리>,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 <리골레토> 연출
- 현) 장크트 마르가레텐 오페라 페스티벌 예술제작감독(2014-), 함부르크 요프 반 덴 엔데 아카데미 교수

무대/의상디자인 Scenic/Costume Design



페트라 바이커트
Petra Weikert

- 2008-2010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와 함께 LA 오페라에서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제작, 2011-2013 맨하임 국립극장에서 의상 및 무대 디자이너/협력디자이너로 협업
- 비엔나 Volksper 극장에서 오페라 <돈 조반니>, 비엔나 축제에서 오페라 <피델리오>, 함부르크 주립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파르지팔>, 2019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라인의 황금>에서 협업
-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마그데부르크, 코트부스, 베를린 필하모니, 밀라노 오텐토리움, 튜링, 펠트키르히페스티벌 등에서 지휘자 토마스 행엘브로크, 연출가 헨드릭 뮐러, 알렉산더 허만, 요하임 라트케 등과 함께 <돈 조반니>, <오이디푸스>, <삼손과 데릴라>,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 <어셔가의 몰락>, <푸른 수염의 성> 등에서 의상 및 무대 디자이너로 참가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마술피리>,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 <리골레토> 무대 및 의상 디자이너

재연출 Re-Director



이혜영
Lee Hyeyoung

- 상명대학교 음악과 졸업
- 독일 보훔대학교 독문학과, 연극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연극학원(음악극 전공) 석사 졸업
- 독일 아헨 시립오페라극장 연출팀 상근직 단원으로 다수의 오페라 작품 참여
- 독일 Merzig Musik & Theater Saar Opernfestival
<돈 조반니>, 스위스 Oper Schenkenberg Festival <일 트로바토레>
조연출 및 무대감독,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정기오페라 <코지 판 투테> 협력연출
- 독일의 다수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사랑의 정원사>, <나사의 회전>, <안네 프랑크의 일기>, <달의 세계> 등 연출
- 한국 국립오페라단,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시오페라단, 광주시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 <리골레토>,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 <카르멘>, <라 보엠>, <겨울나그네>, <목소리>,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 <헨젤과 그레텔>, <로미오와 줄리엣>, <박하사탕>, <후궁으로부터의 도피> 등 연출
-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연출 수업 강사 역임
- 현)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출강

헨젤 Hänsel



독일어 5. 23(금) - 24(토)

M.sop. 정세라
Jung Sera

-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졸업,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수료
- 이태리 로마 베나미노 질리 콩쿨, 이제오디브레샤, 알바니아 마리에 크라야 콩쿨, 중국 닝보콩쿨 특별상 등 다수 콩쿨에서 입상
- 서울시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시립오페라단 등에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피가로의 결혼>, <파우스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술피리>, <박하사탕>, <심청> 등 주·조역 출연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여행' 오페라 갈라 콘서트 출연
- 베를린 콘서트하우스 말러 교향곡 4번 '원주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베토벤 '9번 교향곡', 헨델 '메시아', 바흐 '마태수난곡', 로시니 '작은미사' 등 다수 오라토리오 알토 독창자 출연
- 현) 경기예고, 고양예고, 인천예고 출강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한국어 5. 30(금) - 31(토)

M.sop. 이재영
Lee Jaeyeong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교 성악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베르디국립음악원 졸업, 이탈리아 베르첼리 발룻티시립음악원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프랑스 베지에 국제성악콩쿨 2위, 이탈리아 벨라노 국제성악콩쿨 3위, 이탈리아 주디타 파스타 국제성악콩쿨 특별상 수상 및 리날도 펠리쥬니, 마리아 말리브란, 마르모, 이즈마엘레 볼톨리니 등의 국제성악콩쿨 입상
- 오스트리아 호에넬스 '아르페조네' 오케스트라 초청 협연
- 오페라 <파우스트>, <일 트로바토레>, <나부코>, <나비부인>, <피가로의 결혼>, <리콜레토>, <심청> 등 다수 오페라 주·조역 출연
- <카르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프리스 친구> 등 다수 콘서트오페라 출연
- 현) 경북예술고등학교 출강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그레텔 Gretel



독일어 5. 23(금) - 24(토)

Sop. 허은정
Heo Eunjung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실기수석 졸업
- 독일 에센 포크방 예술대학 최고점 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 톤할레 극장 솔리스트 역임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리타>, <사랑의 묘약>, <라 보엠>, <마술피리>, <킹세종>, <리골레토>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모차르트 '레퀴엠', 베토벤 '나인심포니' 솔리스트 출연
- KBS 대구 클래식FM '포시즌', MBC '내일도 칸타빌레' 출연
- 창작가곡 '회신-윤동주', '달에 홀린 뱀에로' 출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달서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비원뮤직홀 기획 공연 다수 출연
- 현) KBS대구 클래식FM 라디오 '벨라보체' 진행



한국어 5. 30(금) - 31(토)

Sop. 윤성희
Yoon Sunghwe

-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이태리 볼로냐국립음악원 졸업
- 이태리 국제 콩쿨 치타 디 볼로냐, 치타 디 테라모 1위, 레온까발로 2위 외 다수의 국제콩쿨에서 우승
- 서울시향, 경기필, 군산시향, 경북도향, TIMF, 성남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천안시립합창단, 청주시립합창단 등과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협연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등과 오페라 <마술피리>, <돈 파스칼레>, <사랑의 묘약> 및 창작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 <땃발길러>, <나비의 꿈>, <춘향탈옥>, <사문진-피아노 그 첫번째 이야기>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성신여대, 명지대 강사 역임
- 현) KAN엔터테인먼트 소속

엄마 Mother



독일어 5. 23(금) - 24(토)

M.Sop. 이아름

Lee Arum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 세계적인 소프라노 셰릴 스투더에게 발탁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마스터과정 졸업
- 프랑스 부르그뉴 국제콩쿨 및 국내·외 다수 콩쿨 입상
- 오라토리오 카리시미 '예프테', 비발디 '글로리아',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레퀴엠', 베토벤 '합창 환상곡', '나인심포니', 멘델스존 '엘리아' 등 알토 독창자 출연
- 오페라 <오르페오>, <달의 세계>, <마술피리>, <파우스트>, <일 트리티코>, <팔스타프>, <유쾌한 미망인>, <친구 프리츠>, <오이디푸스 왕>, <결혼>, <장미의 기사>, <춘향전>, <게임오브찬스> 및 오페레타 <박쥐> 등 주·조역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한국어 5. 30(금) - 31(토)

M.Sop. 박소진

Park Sojin

-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일본 엘리자베스대학교 성악과 석사
- 미국 오클라호마시립대학교 성악과 석사, 미국 템플대학교 오페라과 석사 졸업, 미국 템플대학교 성악과 박사 수료
- 미국명예음악인협회(Pi Kappa Lambda) 콩쿨 NATS 수상, 키르기스탄 국립극장 오페라 논개 공연 및 문화부장관 표창장 수상
- 오페라 <카르멘>, <루치아>, <잔니 스키키>, <피가로의 결혼>, <헨젤과 그레텔>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모차르트 '레퀴엠', 슈베르트 'G장조 미사', 베토벤 '합창' 등 솔리스트 출연
-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및 국내 외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아빠 Father



독일어 5. 23(금) - 24(토)

Bar. 김형준

Kim Hyungjun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케를텐 주립음대 최고점 졸업,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오페라과 수료, 이탈리아 로마 A.R.T 아카데미 수료
- CBS 제19회 오라토리오 '하이든 테레지아미사' 솔리스트 출연
- 유럽 및 서울국립오페라단, 광주시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다수 극장에서 오페라 <비바 라 맘마>, <피델리오>, <코지 판 투테>, <팔리아치>,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헨젤과 그레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살로메>, <토스카>, <세빌리아의 이발사>, <일 타바로>, <서부의 아가씨> 주·조역 출연
- 디오오케스트라, 경북도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협연 및 오페라 갈라콘서트, 초청 기획공연, 송년음악회, 오라토리오 등 다수 출연
- 영남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역임
- 현) 오페라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한국어 5. 30(금) - 31(토)

Bar. 서정혁

Seo Jeonghyeok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 졸업, 소프라노 라이나카바이반스카 아카데미 장학생,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베르첼리 시립 아카데미, 마리아노 코멘세 아카데미 성악 및 합창지휘 졸업
- 이탈리아 비테르보 국제콩쿨, 몬테코사로 국제콩쿨, 베르가모 국제콩쿨, 만토바 국제콩쿨, 로디 국제 콩쿨 수상
- '객석' 선정 한국을 빛낸 오페라 가수 75인 선정
- 이탈리아 피아첸차, 모데나 파바로티 프레니, 베로나 필하모니코, 꼬모, 페라라, 베르첼리, 산레모,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오페라, 부르가스 국립오페라, 독일 칼스루에, 서울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다수 극장에서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일 트로바토레>, <돈 파스칼레>, <팔리아치>, <헨젤과 그레텔>,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박쥐>, <안드레아 세니에>, <박하사탕>, <비밀결혼>, <운명의 힘>, <카르멘>, <나비부인>, <로미오와 줄리엣>,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 등 다수 오페라 출연
- 콘체르탄테, 오페라 갈라콘서트,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오라토리오 등 각종 콘서트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객원교수, 경북예고 출강

마녀 The Gingerbread Witch



독일어 5. 23(금) - 24(토)

Ten. 이요섭

Lee Yoseop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학사 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 음대 석사 졸업 및 독일 국가장학금(Deutschlandtipendium) 영득
- 21/22시즌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스튜디오, 23/24시즌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오페레타 <박쥐>, 오페라 <왕자호동>, <아틸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카르멘>,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비밀결혼>, <장미의 기사>, <라 보엠> 등 주·조역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한국어 5. 30(금) - 31(토)

Ten. 김성환

Kim Sunghwan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합창지휘 박사과정 수료
- 독일 쾰른 국립음대(아헨) Konzertgesang 디플롬 졸업
- 오페라 <사랑의묘약>, <마술피리>, <팔리아치>, <리골레토>, <박쥐>, <살로메>, <헨젤과 그레텔> 등 다수 오페라 주·조역 출연
- 대구, 울산 등에서 다수 음악회 출연
- 안동교도소, 울산구치소, 대구구치소 수형자 중창단 지휘자 역임, 영남대학교 직원합창단 지휘자 역임, 영남대학교 교수합창단 지휘자 역임
- 현) Ensemble M.S.G 대표, 대구오페라콰이어 음악감독

모래요정/이슬요정 Sand Fairy/Dew Fairy



독일어 5. 23(금) - 24(토)

Sop. 박희경

Park Heekyung

- 목원대학교 성악뮤지컬학과 학사 졸업(4년 장학생)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교 오페라과 석사 졸업
- 제 2회 KAMA 한미국제콩쿨, 제 21회 에듀클래식 콩쿨 1위, 제4회 아울러서 국제콩쿨 공동 3위 수상
- 포르투갈 '마르바웅 국제 음악 페스티벌' 초청 및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의 '블론데'역 유럽 데뷔
- 오페레타 <박쥐>, <지옥의 오르페>,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식>, <알버트 헤링>, <코지 판 투데>, <세빌리아의 이발사> 외 다수 주역 출연
- 스테이지원 '성악예찬' 프로젝트 영 아티스트 선발 및 고양 아람누리 갈라콘서트 연주, 대전 예술의전당 스프링 페스티벌 바흐아벤트 신진예술가 선정 및 리사이틀 연주
- 현) 2025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한국어 5. 30(금) - 31(토)

Sop. 박예슬

Park Yesol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이탈리아 노바라 극장 아카데미(AMO) 수료,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2024) 수료
- 이탈리아 프렐미오 쿠리르 국제콩쿨 1위, 대구성악콩쿨 우수상, 몬테로쏘 알 마레 및 T.O.S.C.A. 국제콩쿨 2위 수상 외 국내·외 다수 국제 콩쿨 입상
- 에스토니아 Tallinn Winter Festival 및 노르웨이 초청 연주, 프랑스 3개 도시 투어 난민돕기 자선 음악회, 이탈리아 안도라 오페라 <리글레토> 갈라 콘서트, 금난새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등 국내외 다수 음악회 출연
-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극장 및 이탈리아 밀라노 Bell'Opera Festival 오페라 <라 보엠>, 이탈리아 노바라 극장 오페라 <돈 파스칼레>, 대구오페라하우스 <마술피리>, <라 보엠>, 대구문화예술회관 <사랑의 묘약>, <로미오와 줄리엣> 등 국내외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부산예고 출강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이상원 홍보담당 김윤주

Violin 1 박은지, 장유진, 장혜진, 류가현, 장지은, 정수현, 이지애, 이은영, 장세희, 장혜지

Violin 2 양수빈, 이소희, 노선균, 김현비, 강예은, 김재은, 박민서, 김예성

Viola 배은진, 조민지, 박선영, 김효원, 조재형, 김예송

Cello 강윤선, 설예은, 박소희, 김형기, 박소현, 최재영

C. Bass 함소현, 김지정, 서한나 **Flute** 이한나, 김민주, 백선미

Oboe 배민주, 최규연 **Clarinet** 김민수, 전다양

Bassoon 조혜연, 조윤주 **Horn** 양삼영, 김태우, 고해원, 송상호

Trumpet 이혜연, 전성화 **Trombone** 김진옥, 이민정, 강준혁

Tuba 추지원 **Timpani** 권혜진 **Percussion** 이희정, 허동훈, 김도엽 **Harp** 이은하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단무장 배은경 반주 류지원

Sop. 박예람(트레이너), 이나은, 김채이, 정원정, 이다영

Alto 권찬미, 정경진, 권민선, 박수정, 박지원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Daegu
Opera Youth Choir



합창지휘 홍제만 반주 이지영, 이은정 트레이너 전가흔, 이하경 사무장 양영승

합창 구선영, 김단아, 김민채, 김시우, 김지니, 남의정, 문민나, 박수인, 양지원, 임윤지, 정재인, 최은서



연기 이도율, 황예준, 박윤슬

극단 늘해랑

Theater Company
Neulhaerang



대표 김예진

배우 이우락, 석은석, 윤제건, 한담덕

무대 어드바이저 및 소품감독 Stage Adviser & Props Director



김현정

Kim Hyunjung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가구디자인) 졸업, 브레라 국립미술원 졸업
-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 역임,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전임대우교수 역임
- 오페라 <아랑>, <지귀>,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송년오페라 갈라,
<지크프리트의 검>, <세빌리아의 이발사>, <투란도트>, <마술피리>,
<아이다>, <오텔로>, <토스카>, 연극 '오리사냥', '연애편곡', '콜렉션', '십이야',
'아일랜드', '화금석', 국립창극단 '적벽' 등 무대디자인 및 신년음악회, 터키만찬, 전시회 등 참여

조명 디자인 Lighting Design



문길환

Mun Kilhwan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 <리골레토> 외 오페라 13편 조명디자인
-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독일 K15 '햄릿 에피소드', 일본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R 'ICE & - WATER',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코리아 더블' 조명디자인
- 헝가리 에르켈극장 콘체르탄테 <능소화 하늘꽃>
- 일본 히로시마 아스텔프라자 오페라 <라 보엠>
- 이탈리아 페라라시립극장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 제28회 세계가스총회 기념 오페라 <아이다 2023>
- MA_Lighting_international calendar 선정

영상 디자인 Video Design



윤호섭

Youn Raphael

- 한성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졸업,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무대미술학과 수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VR&VFX(시각 효과) 마스터과정 수료
- STUDIO 'RAPHAELYOUN' FOUNDER
- 예술의전당, 성남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수원SK아트리움,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라 보엠>, <투란도트>,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 <팔리아치>, <돈 조반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카르멘> 등 다수 작품 참여
- 현) 영상디자이너로 활동 중

의상감독 Costume Director**김건이**

Kim Kune

-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석사
- 대구오페라하우스 <라 롬디네>,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헨젤과 그레텔>, <돈 조반니>, <살로메>, <안드레아 세니에> 의상디자인 및 감독
- Premiere class(Paris, France), Vendome Luxury 전시회(Paris, France), Pure London(London, U.K.), Coterie Trade Show(New York, U.S.A.), Who's Next(Paris, France), 대련패션위크 초청 컬렉션(Dailen, China), 상해컬렉션(Shanghai, China), 서울컬렉션(Seoul, Korea) 참가
- 현) 앙디올트랜드 대표/패션디자이너, 세계패션그룹 (FGI) 한국지부 회원, 한국디자이너 연합회 회원

분장 디자인 Make-up Design**김언영**

Kim Eonyoung

- 대구가톨릭대학교예술대학원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미술학 석사
- 프랑스 christianchauveau 수료
- 제32회 대구연극제 '무대미술상' 입상
- 실경수상 창작뮤지컬 <부용지애>, 창작뮤지컬 <왕의 나라>, 도동서원 사액봉행 재현행사 분장총괄
- 오페라 <심청>, <264, 그 한 개의 별>,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묘약>, <리날도>, <라 보엠>, <마술피리>, <돈 조반니>, <팔리아치>, <춘향전>, <잔니스키키>, <세빌리아의 이발사>, <카르멘>, <아키스와갈라테아>, <살로메>, 연극 '햄릿', '리어왕', '한여름밤의 꿈', '탈라라하우스', '템페스트', '십이야', '파우스트', '해무' 등 다수 작품 참여
- 현) 에리카메이크업프로덕션 대표

조연출 Assistant Director**장소희**

Jang Sohe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오페라 <나비부인>, <로엔그린>, <돈 카를로>, <안드레아 세니에>, <아이다>, <심청>, <살로메>, <장미의 기사> 등 다수 오페라 조연출
- 창작뮤지컬 <토돌이의모험>, <어린왕자> 등 다수 뮤지컬 조연출
- 현) 국내·외 프로덕션에서 전문 조연출로 활동 중

오페라코치 Opera Coach**김진민**

Klim Jinmin

- 계명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최고과정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오페라코치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 오스트리아 국제 성악 콩쿨 팔리아비니 페루치오 타글리아비니 공식반주자 역임
- 현) KAN Entertainment 소속 마스터 아티스트 및 국내·외에서 오페라코치로 활동 중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한주헌
연출	헨드릭 뮐러 Hendrik Müller
재연출	이혜영
무대/의상디자인	페트라 바이커트 Petra Weikert
무대어드바이저/소품감독	김현정
조명디자인/감독	문길환
영상디자인	윤호섭
의상감독	김건이
분장디자인	김언영
프로듀서	최서운 이한나 한규리
무대감독	박병달
음향감독	조원호
조연출	장소희
조연출보	이아영
소품수	조민영
오페라코치	김진민
반주	최혜지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무대크루	정종극 구민우 전진룡 이동원 심건수 최대현 김우림 손정현
조명크루	금명정 심유섭 이승준 정은지 조경빈
음향크루	조윤아 윤선영
의상팀	앙디울(김나영 윤혜민 권혜민 윤하은)
분장팀	에리카(김수정 이혜연 이혜민 이하늘 최정은)
영상촬영팀	에프에스미디어
사진촬영팀	용스튜디오
무대제작소	그린홈스디자인
소품제작소	하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공연기획팀 팀장 이효진 이한나 박선영 한규리 최서운 김현주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정진섭 박지울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최지희 조현우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10기 오페라팬 게라시멘코 안젤리나 문보미 배민욱 배순옥 오 늘 윤정민 이수진 이채현 장성민 추승민

차라리
보도
진말라

264 - 김성재 - 그한개의별

광복 80주년 기념
2025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오페라

2025. 8. 20(수) - 23(토)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평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 대구오페라하우스 예매 | NOL 티켓 1661-5946

이육사 - 교목 - 중어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선정 공연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재)국립오페라단 제작



어느날,
죽은
아내가
찾아왔다.

Erich Wolfgang Korngold

죽음의 도시

Die tote Stadt

2025 9. 5(금) 7:30pm - 6(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 (재)국립오페라단,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예매 | NOL 티켓 1661-5946





[QR코드 스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